



‘돌아온 에이스의 화려한 부활’ 21일 광명스포돔에서 열린 제5회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 특선급 결승에서 우승한 김민철(34·87기) 선수가 트로피와 상금을 들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그의 우승은 선수생명을 위협한 부상의 고비를 극복하고 거둔 인간승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광명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김민철, 두개골 골절 딛고 ‘인간 승리’

제5회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 우승

이명현 활로 열고 노태경과 선두권 형성 막판 폭발적 추임력 발휘해 결승선 선착

2010년 낙차 사고로 선수생명 끝날 뻔 뼈를 깎는 재활·몸단장에 끝에 부활 신고 기쁨에 벅차 눈물 “그랑프리 챔피언 도전”

2013년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이하 스포츠동아배)은 ‘호남선 KTX’ 김민철(34·87기)의 인간승리 드라마로 빛났다.

김민철은 21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포돔에서 열린 제5회 스포츠동아배 특선급 결승에서 경기 초반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며 우승해 상금 1370만원을 차지했다.

김민철의 이번 우승은 프로 경륜 선수로서 넘기 힘든 부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둔 성과여서 더욱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김민철은 3년 연속 네티즌배를 제패하며 전성기를 달리던 2010년 10월 단체훈련 도중 낙차 사고를 겪으면서 자칫 선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고비를 맞았다.

사고로 김민철은 두개골과 쇄골이 골절돼 수술을 받고 3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퇴원 후 불과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벨로드롬에 복귀했다. 김민철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재활 노력 끝에 다시 경주로에 서자 병원에서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기적이다”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컴백 후 한동안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대상경주 같은 큰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주위로부터 “한물 갔다”는 말들 듣기도 했으나, 이런 평가에 상관없이 꾸준히 훈련을 거듭한 끝에 이번 스포츠동아배 우승으로 확실한 부활을 선언했다.

●완벽한 팀플레이…호남팀 삼각편대 나란히 입상

이날 결승은 완벽한 팀플레이의 승리로 눈길을 끌었다. 호남팀은 특선급 결승에 김민철과 지난해 그랑프리 챔피언 이명현(29·167기), 노태경(30·137기) 등 3명이 진출해 경기 전부터 강세가 예상됐다. 실제로 이날 호남팀 삼각편대의 활약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선두유도원 퇴포 후 결승선까지 한바퀴 반을 남긴 지점에서 먼저 선두로 치고 나온 건 대구팀의 류재열(26·197기)과 가평팀에

이스 공민우(33·117기). 이때 이명현이 쫓아기기로 선두를 탈환했다. 이명현이 활로를 열자 김민철과 노태경이 따라붙어 선두권을 형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호남팀 3중사의 불꽃 스피드가 펼쳐졌고 김민철이 간발의 차로 앞서 끝인했다. 이명현이 2위, 노태경이 3위로 결승에 진출한 호남팀 3명이 모두 입상했다.

3년 만에 시상대 맨 꼭대기에 선 김민철은 “부상 이후 눈물 속에서 훈련했는데 오늘 기쁨의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스포츠동아배 우승을 계기로 올해 그랑프리 챔피언에 도전하겠다”며 당찬 포부도 밝혔다.

한편, 앞서 열린 선발급에서는 하동성(27·187기)이 질풍같은 추임으로 우승과 함께 특별승급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우수급에서는 선형 승부수가 멋지게 적응한 윤현준(25·187기)이 생애 첫 대상경주 정상에 올랐다.

이날 광명스포돔 경륜장에는 스포츠동아배를 맞아 1만여 명의 팬들이 짜릿한 승부의 진수를 만끽했고, 169억 252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광명 | 김재학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벅찬 우승의 감격으로 눈시울을 적신 김민철 선수. 광명 | 박화용 기자



김포 한강신도시 ‘래미안 2차’ 분양 3.3㎡당 900만원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눈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김포 한강신도시 Ab-11 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로 저렴하고, 래미안 최초로 중도금(60%)도 전액 무이자여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2~21층, 22개동 총 1711가구로 김포 한강신도시 민영아파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68㎡, 70㎡, 75㎡, 77㎡, 84㎡ 5개로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는 김포 한강신도시 생태환경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역 중심숙지인 모담산과 연결되는 4만7428㎡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 약 63만㎡ 규모의 조류생태공원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7월 개통한 김포한강교의 초입에 있어 승용차로 여의도까지는 20분, 강남은 40분이면 다닐 수 있다. 이전까지 서울과 김포를 잇는 주요 도로였던 48번 국도도 단지와 바로 연결되며 외곽순환도로 김포 IC의 이용도 편하다. 2014년 6월 입주예정이다. (분양문의 : 1588-8854)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Oh! point’ 할인·적립 동시에!

BC카드-KT, 신개념 포인트결제 서비스 출시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강태)가 KT(회장 이석재)와 함께 금융, 통신의 컨버전스 시대를 선도할 신개념 포인트결제 서비스인 ‘Oh! point(사진)’를 출시했다.

‘Oh! point’는 고객이 제휴가맹점을 이용할 때 포인트 적립은 물론 포인트 차감을 통한 할인 및 별도의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개념 포인트결제 서비스이다.

적립 혜택 또는 포인트를 이용한 차감할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포인트 서비스와 달리 대부분의 제휴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이용한 할인혜택과 동시에 결제 금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Oh! point’ 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할 경우 2000원은 포인트 차감을 통해 할인받고, 실제로 결제되는 8000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을 다시 ‘Oh! point’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혜택 안내 및 회원가입·카드발급 서비스는 ‘Oh! point’ 홈페이지(www.ohpoint card.com)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대작 러시’ 이번엔 PC온라인 게임이다!

2013년 상반기 온라인 게임 기대작들이 시장 공략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게임 이슈에 묻혀 조용하던 PC온라인 게임 부문에 신작들이 잇달아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둔 PC온라인 게임들은 고퀄리티 그래픽과 물리효과는 물론 장르 혼합 등 기존 게임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흥행 성과가 주목된다.

넥슨은 23일 신작 ‘워페이스’ 공개서비스를 시작한다. ‘워페이스’는 일인칭슈팅(FPS)게임이다. 특히 ‘크라이시스(Crisis)’ 시리즈로 유명한 독일의 크라이텍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FPS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첨단 기술인 ‘크라이엔진3’ 개발 솔루션을 활용한 차세대 비주얼·물리효과를 기반으로 협동 플레이에 특화된 ‘유저 대 컴퓨터(PvE) 전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CJ E&M 넷마블은 대규모 부대 전투를 특징으로 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 RPG) ‘모나크’의 공개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마에이게임즈가 개발한 이 게임은 캐릭터의 레벨 제한 없이 모든 아이템과 장비 장착이 가능하고, 시나리오 퀘스트 중심이 아닌 전투를 기반으로 길드 및 파벌간의 집단 커뮤니티가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온라인게임 최초로 정예부대를 활용한 대규모

부대전투를 구현해 수천 개의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부대전투와 공성전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한게임은 최근 3차 테스트를 마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액션RPG ‘던전스트라이커’의 공개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네오위즈게임즈도 드래곤플라이어 개발한 AOS 게임 ‘킹덤언더파이어 온라인:에이지오브 스톰’의 마지막 테스트를 5월1일까지 실시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한게임 ‘던전스트라이커’



네오위즈 ‘에이지오브 스톰’